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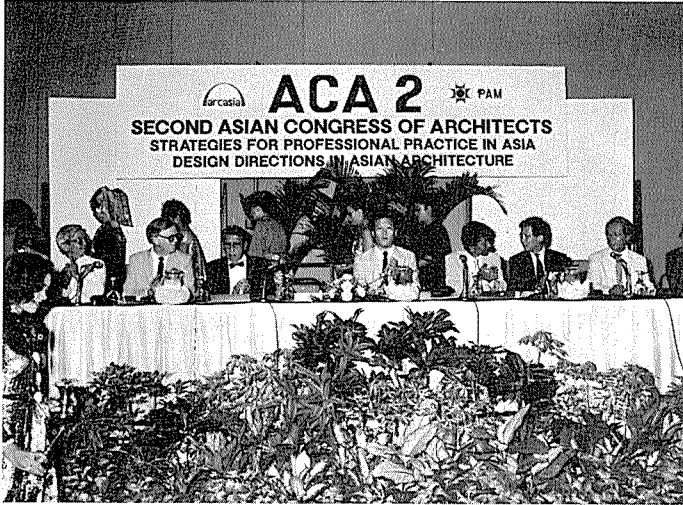
제 3 차 아시아 建築士大會 開催案内

주최: 大韓 建築士 協會

협찬: 아시아 建築士 協議會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NOV. 7-11, 1988, SEOUL, KOREA



1988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본 협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제3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CA-3)의 각종 세부 행사의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가고 있으며, 금번 ACA-3에는 본 협회 전회원은 물론 ARCASIA 전 회원국 및 기타 국가에서 200여 건축사와 국내외 건축관련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 대회 추진 위원회에서는 금번 ACA-3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하여 미국 M.I.T의 N.J.Habraken교수, AIA(미국건축가협회) 회장 Benjamin E.Brewer, UIA(국제건축가연맹) 회장 Rod Hackney 그리고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부총장이며 건축학과 교수인 C.B.Wilson 등을 기조연설 또는 주제 발표를 위하여 초청연사로 모실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다.

또한 Architecture Review지의 Peter Davey 편집장 및 유럽 건축문화 잡지의 대명사로 알려진 아가칸 재단의 대표와 인도 건축사 Charles Correa, 말레이시아 건축사의 대부 Kington Loo, 싱가포르의 Tay Kheng Soon씨 등을 모시고 공동주제에 대한 토론을 가질수 있는 시간도 계획하고 있다.

본 대회 추진 위원회에서는 ACA-3를 내실있고 알찬 대회가 되게하기 위하여 그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본 대회에 참석하는 외국 건축사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과 우리나라의 발전된 건축문화를 견학할 수 있는 시간을 두었으며, 우리 건축사들과 외국 건축사들간에 대화를 가질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여 상호 건축활동에 대한 의견 교환이나 우정을 나눌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본 대회와 아울러 후진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ARCASIA 각 회원국 협회에서 추천한 건축전공 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과의 건축에 관한 학술 토론과 친교행사를 갖는 학생셈보리 대회도 병행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서 건축사간의 유대강화와 회원국간의 기술교류 및 건축환경 분야의 체계적 발전 추구의 계기와 우리나라의 도시 건축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기위한 좋은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며, 더우기 건축의 해외시장 확대에도 큰기여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금번 ACA-3에 초청하고자 하는 연사들은 건축계의 세계적인 대가들로서 우리 모두가 본 대회에 참여하여 그들의 건축에 대한 사상과 작품이념 등을 공부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금번 ACA-3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참여를 청원드리는 바이다.

아시아 정신 :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

1987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8회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이사회와 병행해서 열렸던 아카시아 토론회(ARCASIA FORUM)에서는 발리인의 건축사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인 “운다기”(Undagi)에 대한 논의가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운다기”는 모든사람이 스스로 각자의 건축사이기를 가르칠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업무를 사회적 의무로 받아들인다.

그곳에서는 건축행위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발원하여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온 사회가 그들의 생활환경에 관련된 넓은 의미에서의 모든 존재를 위한 건축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인 아시아 국가들, 특히 급속히 변천되어 가고 있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건축사의 이미지와 역할을 재고하게 하고 있다. 각 국가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건축사의 전통적 역할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THEME The Asian Spirt: Architecture for the Community

The Bali Meeting of ARCASIA 1987 left a strong imprint of the traditional Balinese image of the architect called “Undagi” in the minds of the participants. There “Undagi” considers their works as a social obligation aside to teach all people to be the architect of their own. The whole society is oriented towards architecture by the people, from the people, as well as, for all beings concerned. This reiterates the image and role of the architect in the traditional societies, especially of Asian Countries which are undergoing rapid transition into highly industrialised societies. Each country may have had a traditional role structure of architect in its own name.

제 3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 프로그램

도 착 일 ARRIVAL	아카시아 이사회 COUNCIL MEETINGS		아시아 건축사 대회 CONFERENCE		관 광 TOUR
11. 6 SUNDAY	11. 7 MONDAY	11. 8 TUESDAY	11. 9 WEDNESDAY	11. 10 THURSDAY	11. 11 FRIDAY
	1 일 DAY 1	2 일 DAY 2	3 일 DAY 3	4 일 DAY 4	5 일 DAY 5
대표단 및 학생 도착 Delegates and Students Arrive	아카시아 이사회 1 ARCASIA COUNCIL SESSION 1 중 식 LUNCH	아카시아 이사회 3 ARCASIA COUNCIL SESSION 3 중 식 LUNCH	대회 발표회 1 주제 : 건축사와 공동 사회 ACA-3 SESSION 1 Architects and the Community 중 식 LUNCH	대회 발표 3 주제 : 미래의 건축사 역할 ACA-3 SESSION-3 The role of Architeds in the Coming Age 중 식 LUNCH	관 광 독립기념관 및 민속촌 TRIP TO Independence Memorial Hall and Folk Village
	아카시아 이사회 2 ARCASIA COUNCIL SESSION 2	아카시아 자문기구 회의 ARCASIA THINK TANK MEE- TI- NG 교육위원회 회의 ACAE MEETING	대회 발표회 2 주제 : 건축사의 사회 적 임무 ACA-3 SESSION 2 The Social Commitmen nt of the Architect 중 식 LUNCH	대회 발표회 4 종합토론 ACA-3 SESSION 4 Workshop 결의문 채택 Committee on Resolutions.	
학생잼보리 개 회식 및 식대표 단만찬 Opening Eve of Students Jam- boree	환영 연회 Welcome Party	개 회 식 Opening of Exhibit and Congress Open Opening Ceremony	문화의 밤 Friendship Night	폐 회 식 Closing Ceremony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rchitecture for the Community”

그 특성은 물질적인 면을 넘어서 대체적으로 영적이고 의식적이며 또한 생활공동체적 성격을 지녔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사회에서 건축사들은 그들의 건축행위에 있어 광의의 공동사회를 더욱 의식하였으며 이것은 즉 미시우주와 거시우주의 조화와 더불어 이웃과의 조화된 생활을 그들의 건축행위의 목표로서 추구했음을 뜻한다.

반면에, 아시아의 산업화된 지역에서는 건축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영역이 매우 전문화된 분야로 세분화 되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서, 고객층은 다변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 사항 또한 너무도 복잡적이고 높은 기술적 수준을 요구하므로 건축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게 되었다.

건축사들은 실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사회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물리적 성능의 최대 효율이나 혹은 단순히 시각적인 외양의 세련됨을 기준으로 한 건축주의 요구의 심해속으로 빠지게끔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건축사들은 생활환경의 시각적 측면을 변안하는 위에 단순히 여러 전문분야들을 교묘히 조정하는 역할로 후퇴해야만 하는 곤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건축사의 전통적인 역할 혹은 “운다기”의 이미지가 우리 건축사들에게 한가닥의 불빛을 던져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공동사회의 정신인 것이다.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면을 지향하는 조류속에서 우리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우리는 아시아인들의 마음속에서 아직 완전히 지워져버리지 않은 이 공동사회 정신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건축사들이 공동사회로 부터 어떻게 기대되고 있으며 생활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것은 건축사들 개개인 뿐만아니라 건축계 전반에 부여된 급속도로 변천하고 있는 우리시대의 요청인 것이다. 공동사회에서의 건축사의 역할을 향상시키는 최상의 길은 지금까지 소홀했던 건축사의 역할의 사회적인 차원에 관심을 모으는 것일 것이다.

제3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는 이 논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It may have been more or less spiritual, ritual, and communal as much as physical in its character. Architects in the traditional societies are more conscious of community in its widest sense; that is the harmonious living with their neighbours as well as the harmony between micro cosmos and macro cosmos.

On the other hand, in the industrialised part of Asia, the workscope of providing built environment has become compartmentalised into deeply specialised fields. Furthermore, the strata of clients are diverse and wide such that requirements are too complicated and technological standards too high to be solved by architects alone.

The profession may be submerged into the deep sea of requirements under the burden of standards set within criteria of maximum efficiency in physical performance or of mere sophistication in visual appearance rather than concerned for the living community. Amid this, the profession is faced with a dilemma of being retreated to a mere skillful coordinator of expertise on top of being an interpreter of the visual context of the living environment. Here the traditional role of architect or the image of the “Undagi” may shed a dim light onto our profession. That is the community spirit.

On the brink of the wave rolling towards materialistic and technologically oriented society, we need to vitalize the community spirit in providing for our living environment, which is not yet totally faded away from the Asian’s mind. Time has come for architects themselves to rethink on what they are expected to do and should do for the community. This is the request of our time in rapid transition addressed not only to individual architects but also to the profession as a whole. The best way to enhance the architects’ role in their community seems to be focussed on the social dimension of the profession to which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he Thi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now addresses this issue.